

“올해는 평창, 내년엔 광주수영대회 오세요”

조직위 본격 홍보 캠페인 평창올림픽 기간 홍보관 운영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윤장현)가 새해를 맞아 본격적인 대회 홍보에 나서고 있다.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대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고 있어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홍보도 강화하고 있다.

조직위는 2일 광주공항, 송정역, 광주종합버스터미널에서 조직위 직원 100여명과 함께 새해맞이 시무식 겸 광주수영대회 알리기 캠페인을 했다.

조직위는 관계자는 “지난 2017년이 대회 준비를 위한 밑그림을 그린 한 해였다면 2018년은 이에 색을 입히고 현장 중심으로 구체적인 대회 준비를 하는 매우 중요한 한 해인 만큼 차질없이 준비하겠다”는 다짐을 새해 벽두에 다중집합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2019년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와 동·하계올림픽, FIFA월드컵축구대회와 더불어 세계 제4대 메가스포츠대회라는 점을 광주방문객과 시민들에게 알리고 있다. 조직위는 대회 붐 조성을 위해 지난 11월 광주시청에 홍보관을 열고 광주공항, 광주송정역, 5·18민주광장에 홍보조형물을 설치했다.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는 2일 광주공항, 송정역, 광주종합버스터미널에서 조직위 직원 100여명과 함께 새해맞이 시무식 겸 광주수영대회 알리기 캠페인을 했다. <조직위 제공>

또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현장 홍보관 운영, 전국 다중 이용시설에 홍보 조형물 설치, 중국어와 일본어 홈페이지 개설, 소셜미디어, 언론매체 홍보에도 나선다. 세계적인 해외홍보를 위해서도 해외홍보대행 유행사를 국제 입찰을 통해 선정해 해외 언론과의 네트워크로 광주수영대회를

해외 언론에 노출시켜 나갈 방침이다. 조직위 조영택 사무총장은 “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해서는 1988년 서울올림픽,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2015년 하계U대회와 같은 열광적인 붐 조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면서 “지역민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2019 광주세계수영대회는 2019년 7월 12일부터 8월 11일까지 31일간 프로 선수가 참가하는 선수권대회와 동호인들이 참가하는 마스터즈 대회가 진행되며 208개국 선수와 임원 등 1만5,0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시, 우산동·임암동 아파트 건설·변경 승인

광주시가 지난해 12월 29일 광산구 우산동, 남구 임암동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각각 승인, 변경승인했다.

이번 승인에 따라 광산구 우산동 1343-6번지 일원과 남구 임암동 효천1지구 B-2블록에 아파트 건립이 가능해졌다.

2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산구 우산동지역주택조합 대표가 광산구 우산동 1343-6번지 일원 4만6800㎡에 지하 1층 지상 14~17층 21개동의 아파트를 짓겠다고 제

출한 광산구 우산동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신축공사를 승인했다.

이 아파트 단지에는 76㎡, 84㎡아파트 764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다.

또 시는 (주)시티건설에 제출한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안도 승인했다. 남구 임암동 효천1지구 B-2블록 7만279㎡에 지하 2층 지상 21층 17개 동을 짓는 이번 건축계획에 따라 모두 84㎡ 아파트 1164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 /윤현석기자chadol@

산수도서관 상주작가 김두를빛씨 선정

광주시립산수도서관이 동화작가 김두를빛씨를 상주작가로 선정하고 내년 1월부터 5월까지 문학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산수도서관은 2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문학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위한 ‘2017년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10일 무료로 문학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김 작가는 2010년 등단, 2017년 세종문학다독이 ‘이름해 햇살이 짙’의 저자로 광주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작가와 함께 마음 내키는 대로 글쓰기(2주 1회) ▲동화작가랑 함께 읽고~ 같이 쓰고~(주 1회) ▲작가가 제안하는 독서 코칭 : 책 읽기도 안내가 필요해(주 1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참가 신청은 2일부터 방문 또는 전화(613-7828, 7829)로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립도서관 홈페이지(www.citylib.gwangju.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폐지 위기’ 광산구 경제환경국 유지키로

민형배 청장, 행안부 설득

민형배 광산구청장이 한시적 행정기구였던 경제환경국을 행정안전부와 막바지 ‘담판’을 벌인 끝에 법정기구로 전환하는 데 성공했다.

광산구는 2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난해 12월 29일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행정지표 변화를 산정에 따라 경제환경국을 법정기구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광산구는 그동안 한시기구였던 경제환경국을 법정기구로 전환하기로 했다. 광산구 경제환경국은 민선 4기 시절 이던 지난 2007년 7월 인구 증가에 따른 산업분야와 도시환경 민원이 급증하면서 광주시와 협의해 ‘미래도시사업소’를 한시기구로 발족시켰다. 이후 이 사업소를 한 차례 기한 연장을 거쳐 경제환경국으로 개편했으나 지난해 11월 경제환경국 기한 연장을 위한 광주시와의 협의에서 ‘연장 불가’ 통보를 받았다.

이 때문에 광산구는 2017년 12월부터 경제환경국을 폐지해야 할 입장에 놓였다. 광산구 경제환경국이 폐지될 경우 4개

국에서 3국 체제로 바뀌면서 4급 국장 1개 자리가 줄어든다. 또 국장 1명이 9개과, 36개 팀, 193명을 관장하면서 경제환경국의 고유 사무를 추진할 기반이 사라져 행정조직의 자율성과 효율성이 크게 위협받을 입장이었다.

이에 민 구청장은 지난 연말 연이어 ‘서울행’을 강행, 행안부 차관을 면담하고 관련 부서 담당자를 직접 접촉, 광산구의 실정을 설득했다. 민 구청장은 “전국 최고의 인구 증가율에 따른 행정수요 폭증은 외면한 채 기계적으로 행정기구를 폐지하면 42만 시민이 받는 행정서비스 질 하락은 불보듯 뻔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표방한 자치분권 시대에 맞도록 지방정부의 자치조직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이 민 구청장이 직접 발벗고 나서 이번 광산구의 경제환경국이 막바지에 존치할 수 있게 됐다.

민 구청장은 “한시 기구의 연장 또는 법정 기구 전환은 광주의 모든 지자체가 안고 있는 문제로 ‘자치조직권’을 보장해 특화된 행정을 시민에게 제공하는 방향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선거구 개편 시민의견 듣는다

5일 시청서 공청회

기초의회 선거구 개편을 위한 시민 공청회가 광주에서 열린다.

광주시는 2일 “광주광역시자치구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전광섭 호남대학교수)가 오는 5일 오후 2시 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자치구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에 반영할 의견수렴 시민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지방선거와 기초의회 선거구 개편’이라는 주제로 발제, 종합토론, 청중토론, 발제토론 순으로 열린다.

오승용 전남대 교수가 ‘선거구 획정 어떻게 할 것인가?’ 김경은 변호사가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제한다.

발제에 대한 종합토론은 전광섭 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장이 좌장을 맡

고 지병근 조선대 교수, 김현영 지역공공정책플랫폼광주로 상임이사, 강인호 조선대 교수, 황윤선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장, 김용민 송원대 교수, 강동일 KBC 보도국 차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또 시민 등 청중으로부터 질문을 받는 플로어 토론과 이에 대한 발제자 및 토론자 답변 등 순으로 진행된다.

이번 공청회는 지방선거제도 도입 이후 광주에서 처음 열리는 것으로 시민들에게 열린 토론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광주광역시자치구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와 시의회·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지난해 10월 26일 11명으로 구성됐다. 현재 자치구의원 정수 배분, 지역선거구 획정안 마련을 논의하고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종무식 대신 봉사활동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종무식을 대신해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서구 용두동에 위치한 ‘사랑의 집’에서 30여 명의 소방공무원들이 참여해 대청소와 소방시설을 점검한 뒤 위문품을 전달했다. <광주시 소방안전본부 제공>

광주시 수의계약 업체 1곳당 연 3회 제한

광주시는 2일 “올해부터 수의계약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동일 업체와 연간 수의계약 횟수를 3회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수의계약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1일부터 진행되는 수의계약에 대해 우선 적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수의계약과 관련한 비리위험을 차단하고 지역 영세업체들의 공정한 계약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

된다. 이석환 시 회계과장은 “수의계약은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업체와의 계약으로 사업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업체 선정과정에서 특혜 논란을 줄이기 위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며 “투명한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하고 광주시의 회계·계약 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것이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리치공인중개사

부동산 매매

- 곡성군 옥과면 설옥리 593외 6필지
- 펜션, 체험장, 캠핑장, 전원주택, 수련원 옆 미술관, 커피숍, 별장 가능 1,800㎡(5,000평)
- 설산바위와 설산저수지(가운데 토지)
- 대형차량 출입가능, 조망 좋은 남향

● 매매가 8억원

매매

- 광주 남구 주월동 도로점 646㎡(전) 국제양공장 옆, 전망 최고
▶매매가 1억1천만원
- 전남 화순군 도곡면 쌍옥리 608-12 4개필지, 893㎡(전), 단독주택 가능 전원생활 하실분, 화순CC 옆, 남향 바로 앞 물이 흐름
▶매매가 6천만원

부동산 매매

- 함평군 월야면 용월리 산26-1외 2필지
- 전원주택, 편백숲, 택지분양, 캠핑장·텐트촌, 체험장 가능 30,000㎡(9,000평)
- 대형차량 출입가능
- 달맞이 공원에서 50m

● 매매가 7억원

주인 직거래 010-4602-9264 / 010-4013-2880